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팬 큐레이터' 발대식이 열렸다.

/삼성전자

아이돌 못지않은 갤럭시S9 인기

팬과 함께하는 체험 마케팅

삼성전자, 새로운 팬 문화 만들어
밀레니얼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여러 소비자가 갤럭시 매력 전달

삼성전자가 '갤럭시 S9'와 '갤럭시S9+(플러스)' 출시와 함께 소비자 봉사단 '갤럭시 팬(Fan) 큐레이터'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체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갤럭시 팬 큐레이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 안내를 통해 갤럭시의 매력을 전달하고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며, 갤럭시 S부터 노트8까지 모든 갤럭시 제품을 사용한 열혈 팬부터 인기 유튜

버, 얼리어답터까지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진행된 '갤럭시 팬 큐레이터' 모집에서 약 일주일 동안 총 1700여명이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시니어의 신청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100명의 '갤럭시 팬 큐레이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들과 교감하며 '갤럭시 S9·S9+'의 매력과 활용성을 전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활동

중인 갤럭시 팬 큐레이터 하지민(27) 씨는 "소비자들에게 '갤럭시 S9·S9+'의 다양한 활용성을 소개하는 활동이 보람 있고 뿌듯하다"며 "소비자 리더로서 갤럭시와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갤럭시 팬 큐레이터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팬 큐레이터와 같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관심으로 갤럭시가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교감하는 새로운 체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의류관리기 'LG스타일러' 천식·알레르기 도움 인증

미국 AAFA로부터 인정

LG전자의 의류관리기 'LG스타일러'가 미국에서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LG스타일러는 최근 미국 천식알레르기협회(AAFA)로부터 '천식·알레르기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AAFA측은 "LG스타일러가 의류에 묻은 집먼지 진드기는 물론 박테리아 및 곰팡이를 99% 이상 제거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해당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의류관리기전 분야에서 이 협회의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에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알레르기케어' 기능으로 세탁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동일 인증을 받았다.

LG스타일러는 사용자가 의류를 세탁하지 않아도 매일 위생적으로 옷을 관리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을 이용해 만든 '트루스팀'으로 의류에 묻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등을 없애준다.

LG스타일러는 의류관리기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신개념 융복합 가전제품이다. LG전자는 스타일러를 개발하기 위해 ▲세탁기의 스팀 ▲냉장고의 온도 관리 ▲에어



미국에서 '천식·알레르기에 도움되는 제품' 인증을 받은 LG스타일러. /LG전자

컨의 기류 제어 등 주요 가전의 핵심 기술들을 한 데 모았다.

옷을 흔들어 주는 무빙행어의 경우 1분에 최대 200번 움직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물 입자의 1600분의 1만큼 미세한 트루스팀이 분사되고 건조되는 과정에서 옷에 묻은 냄새, 미세먼지, 세균 등이 제거되고 생활 구김이 줄어든다.

앞서 LG스타일러는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물을 이용해 스팀으로 의류를 관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국 비영리기관 카본 트러스트 ▲독일 인증기관 TUV 라인란트 ▲프랑스 전기공업중앙시험소 등으로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대우전자 '클라세' 공기청정기 시장 첫 발

극초미세먼지·유해가스 제거 기능
타워형 디자인... 2가지 모델 선택

대우전자가 연간 200만대 규모의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한다.

대우전자는 '6단계 청정시스템'과 '전면청정센서'를 적용해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한 '클라세'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공기흡입구에 전문 계측 장비 수준의 '레이저 PM 0.5 센서'를 적용,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지름 0.5μm(마이크로미터)크기의 극초미세먼지 입자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내 공기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했다. 6단계 청정시스템은 프리필터·헤파필터



터·탈취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프리필터로 생활먼지와 반려동물의 털 등 입자가 큰 먼지를 우선 걸러낸 후, 헤파필터로 미세먼지 0.3μm 크기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탈취필터는 세집증후군 유발물질은 물론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등과 같은 생활악취 물질까지 제거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효율 'BLDC' 모터로 오염된 공기는 제품 전·후면으로 흡입한 후 상단의 토출구를 통해 360도 전방향으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입체 청정'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든다.

또한 미세먼지와 냄새를 종합해 4가지 색상으로 공기 청정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자동모드 설정 시 오염도에 따라 공기청정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필터의 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해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필터교체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타워형 디자인 2개 모델로 60㎡(18평)의 공기정화 용량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50만원대.

/정은미 기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 구축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

'지원더뷰' 아파트·오피스텔에 적용
홈IoT서비스도 음성명령으로 이용

LG유플러스가 음성명령만으로 홈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IoT) 연동 기기 제어와 함께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자동 실행 해주는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지원더뷰가 시공하는 '지원더뷰'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스피커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 단지는 세대 내에 구축된 인공지능 IoT플랫폼에 음성인식 기반의 AI스피커를 연동해 ▲냉난방 및 조명·가스 제어, 무인택배, 에너지 사용량 확인, 주차관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밥솥, 가습기 등 개별 구매하는 IoT가전 ▲플러그, 멀티탭, 블라인드, 공기질센서 등 LG유플러스 홈IoT서비스까지 음성명령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황, 시간, 사용자별 조건을 입력해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자동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 나갈게"라고 말하면 집안의 모든 조명과 가스를 끄고 동시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해준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지원더뷰에서 분양 예정인 부산 초량역 지원더뷰시티 오피스텔 372세대를 시작으로 부산 서면 지원더뷰파크 주상복합 288세대, 지원더뷰 아파트 3000여 세대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 구축과 함께 AI스피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국내 최대인 60여개 건설제휴업체와 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00만 가입가구를 확보했다.

/김민이 기자 silkini@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우리사주 초과청약

삼성중공업은 지난 12~15일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배정 물량을 넘어서는 6004만주의 청약신청 물량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두 2억4000만주를 발행할 예정인 삼성중공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행주식의 20%인 48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이번 청약에서 신청대상인 1만797명의 98%인 1만563명이 신주를 신청했다. 신청 물량 6004만주는 배정 물량을 25% 가량 초과한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변동사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개인별 배정 주식수를 확정하고, 주식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삼성중공업에 우리사주 청약할 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의 배정주식의 초과청약은 임직원들의 실적 개선 의지와 시황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구주주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다음달 9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12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12~13일 구주주 청약, 17~18일 실권주 일반 공모 등을 거쳐 오는 5월 4일 신주를 상장한다.

/양성운 기자 ysw@